

나에게 와서 쉬어라

주일 준비 기도서 (가해)

글 심홍보

기흥교회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교회인가 2013년 8월 26일

발행일 초판 1쇄 2013년 12월 25일

글 심홍보 베드로

사진 김귀웅 토마스

펴낸이 전갑수

펴낸곳 기쁜소식

1989년 12월 8일 등록 제 1-983호

서울 성북구 성북로 5길 44(성북동1가)

☎ 02 · 762 · 1194-5 FAX 02 · 741 · 7673

E-mail: goodnews1989@hanmail.net

ISBN ***-**-*****-***-0 *****

가격 0,000원



언젠가 한 신부님이 “강론만 없으면 신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신부님은 “주일날 강론을 안 하면 미사를 드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분들은 신부님들의 강론을 들으며 나름의 평가를 하시겠지만, 신부님들은 그 짧은 주일 미사 강론을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골머리를 싸매고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은 준비하는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말처럼 사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신부로 살면서 종종 주일 강론대에서 선포하고 풀이한 복음의 상황을 그 주간에 실제로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신부들에게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실제 삶 안에서 증거해 보라고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떤 때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복음을 실제로 살아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구의 심홍보 신부님께서 전례력으로 가해 주일 미사에서 읽는 마태오 복음을 중심으로 ‘주일 준비 기도서’를 펴냈습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마태 11,28) 라는 제목으로 펴낸 이 책을 통해 대림 제 1주일부터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매 주일 미사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당 전례부원들과 신자들이 주일을 준비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해’와 ‘다해’의 주일 준비 기도서도 연이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이 이 주일 준비 기도서를 통해 매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맛있는 밥처럼 잘 소화시켜 일상에서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하며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염수정



매일 제단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제사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기념제인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주간에 한 번 복사단, 제대회, 헌화회, 독서단, 해설단, 성가대, 전례부 등 전례 봉사자들이 모여 전례 준비를 합니다. 전례봉사자들은 여러 신자들 앞에서 활동하시기에 여러 눈치도 보고 가끔은 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봉사자들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갖은 뉘치다꺼리를 다 하셔야 하기에 그 노고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매일 제단에서 미사성제를 봉헌하는 저는 수도자분들과 이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전례 준비를 하는 분들은 전례를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봉사자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능하면 그 기도 중에 해당 주일의 미사 복음 말씀을 읽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례 준비자들이 아닌 일반신자들도 이 기도서를 통해 주일 전례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준비 기도는 성호경을 긋고, 각 주일 복음의 주요 말씀

(이나 전문)을 읽고 묵상한 후(기회가 되면 회[부, 대, 단]원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그 주간의 전례 정신에 맞게 기도를 바친 후 회[부, 대, 단]의 고유 기도문을 바치고), 전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묵상 때는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을 되새기거나 ‘주님께서 해당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와 각 성경 기사的主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올 예수 아기 탄신일을 맞아 신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열매 맺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이 글을 추천해 주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님과 교정해 주신 강 디모테아, 심 가타리나 수녀님, 본당 총구역과 전례분과원들, 사무장님, 사진을 보내주신 김귀웅 신부님, 책으로 내주신 기쁜소식 전갑수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삼성동 성가정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차례

추천의 말	4
도움의 말	6
대림 제1주일 깨어 있어라(마태 24,37-44)	12
대림 제2주일 세례자 요한의 설교(마태 3,1-12)	14
대림 제3주일 세례자 요한(마태 11,2-11)	16
대림 제4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마태 1,18-24)	18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님의 탄생(루카 2,1-14)	20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축일 피신(마태 2,13-15)	22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목자의 방문(루카 2,16-21)	24
주님 공현 대축일 동방 박사들의 방문(마태 2,1-12)	26
주님 세례 축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마태 3,13-17)	28
연중 제2주일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34)	30
연중 제3주일 하늘 나라 전도 시작(마태 4,12-23)	32
연중 제4주일 참행복(마태 5,1-12)	34
연중 제5주일 세상의 빛(마태 5,13-16)	36
연중 제6주일 화해, 극기, 정직하여라(마태 5,17-37)	38
연중 제7주일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38-48)	40
연중 제8주일 하느님과 하늘 나라(마태 6,24-34)	42

연중 제9주일 주님의 뜻을 실행하여라(마태 7,21-27)	44
사순 제1주일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심(마태 4,1-11)	46
사순 제2주일 영광스럽게 변모하심(마태 17,1-9)	48
사순 제3주일 사마리아 여인(요한 4,5-42)	50
사순 제4주일 눈먼 사람을 고쳐주심(요한 9,1-38)	52
사순 제5주일 부활과 생명(요한 11,3-45)	54
주님 수난 성지주일 수난 당하시는 예수(마태 27,11-54)	56
예수 부활 대축일 부활하심(마태 28,1-10)	58
부활 제2주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요한 20,19-31)	60
부활 제3주일 엠마오 두 제자에게(루카 24,13-35)	62
부활 제4주일 착한 목자(요한 10,1-10)	64
부활 제5주일 아버지께 가는 길(요한 14,1-12)	66
부활 제6주일 성령을 약속하심(요한 14,15-21)	68
주님 승천 대축일 승천하심(마태 28,16-20)	70
성령 강림 대축일 사명을 부여하심(요한 20,19-23)	72
삼위일체 대축일 삼위일체(요한 3,16-18)	74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생명의 빵(요한 6,51-58)	76
연중 제10주일 세리들과 음식을 드심(마태 9,9-13)	78
연중 제11주일 열두 사도를 파견하심(마태 9,36-10,8)	80
연중 제12주일 복음을 선포하여라(마태 10,26-33)	82
연중 제13주일 받아들이는 이들(마태 10,37-42)	84
연중 제14주일 내 멍에를 메어라(마태 11,25-30)	86
연중 제15주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태 13,1-23)	88

연중 제16주일 가라지의 비유(마태 13,24-43)	90
연중 제17주일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마태 13,44-52)	92
연중 제18주일 오천 명을 먹이심(마태 14,13-21)	94
주님 변모 축일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28-36)	96
연중 제19주일 물위를 걸으심(마태 14,22-33)	98
연중 제20주일 가나안 여자의 믿음(마태 15,21-28)	100
연중 제21주일 베드로의 고백(마태 16,13-20)	102
연중 제22주일 수난과 부활 예고(마태 16,21-27)	104
연중 제23주일 형제가 죄를 지으면(마태 18,15-20)	106
연중 제24주일 죄를 지으면 용서하여라(마태 18,21-35)	108
연중 제25주일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마태 20,1-16)	110
연중 제26주일 두 아들의 비유(마태 21,28-32)	112
연중 제27주일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마태 21,33-43)	114
연중 제28주일 혼인 잔치의 비유(마태 22,1-14)	116
연중 제29주일 세금 내는 문제(마태 22,15-21)	118
연중 제30주일 가장 큰 계명(마태 22,34-40)	120
연중 제31주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마태 23,1-12)	122
연중 제32주일 열처녀의 비유(마태 25,1-13)	124
연중 제33주일 탈렌트의 비유(마태 25,14-30)	126
그리스도왕 대축일 최후의 심판(마태 25,31-46)	128

설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루카 12,35-40)	130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너희는 증언할 것이다(마태 10,17-22)	132

성모 승천 대축일 마리아의 방문과 노래(루카 1,39-56)	134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나를 따르려면(루카 9,23-26)	136
한가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루카 12,15-21)	138
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마태 28,16-20)	140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위령의 날 행복 선언(마태 5,3-12)	142

부록 전례 봉사자 고유기도문	144
1. 전례부원의 기도	144
2-1. 가톨릭 전례 봉사자의 기도	146
2-2. 해설자의 기도	147
3. 독서자의 기도	148
4. 제대회원이 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	149
5-1. 가톨릭 전례 꽃꽂이 봉사자 기도문	150
5-2. 제대 꽃꽂이 봉사자의 기도	151
6-1. 성가대의 기도	152
6-2. 성가대의 기도	153
6-3. 선창자의 기도	154
7. 반주단 기도문	155
8. 복사단 기도문	156



대림 제1주일

말씀 깨어 있어라(마태 24,37-44)

24⁴²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⁴⁴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다시 오실 주님을 맞갖게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깨어 기다리시렵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저희는 오시는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서부터 환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어,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을 안겨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삶에 맞갖은 삶을 우리의 선물로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작은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아멘.

대림 제2주일

말씀 세례자 요한의 설교(마태 3,1-12)

3 ¹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였다. ²“**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⁵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⁶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말하였다. ⁸“**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¹¹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

으면서도, 주님을 맞이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만한 맛갚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회개하여 기꺼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정신을 되새기고 맞추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기쁘게 서게 해주시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봉헌하게 해주소서. 아멘.

대림 제3주일

말씀 세례자 요한(마태 11,2-11)

11 ⁴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⁵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⁶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다시 오시는 주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내 원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형제들과 나누시렵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

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원을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 믿고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는 현실에서 아쉬운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의 필요를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요한 축복을 형제들과 나누게 해주소서. 아멘.

대림 제4주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마태 1,18-24)

1 ²⁰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²¹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 하실 것이다.**” ²⁴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저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러 오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기다립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개인적인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거듭 범죄하고, 세상에서 필요악과 구조악으로 포장된 굴레와 장애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어여삿 여기시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다가온 사건과 상황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기꺼이 받아들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 성탄 대축일

말씀 예수님의 탄생(루카 2,1-14)

2¹⁰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¹¹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 이시다. ¹²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청하시겠습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서서 저희 자신을 되새겨 봅니다. 늘 탐욕스럽게 우리의 바람만 청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과 같은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오신 예수님 앞에 겸허하게 청하오니, 저희를 주님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고, 주님 구원사업에 합치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말씀 이집트로 피신하시다(마태 2,13-15)

2¹³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오셨지만, 위협을 느낀 현세 권력에 의해 제거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의 편이와 안위를 위해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4. 세상의 위협과 압제 속에 살아가는 어려운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안겨주시겠습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주님은 저희에게 희망으로 오셨지만, 저희들은 가끔 주님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때, 저희가 얻는 기쁨과 이득이 다른 이들에게 슬픔과 손해가 될 때 저희는 사랑이신 주님이 부담스럽습니다.

현세적인 권력과 재물로 다른 이들의 희망과 행복을 앗아가는 현실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저희를 기꺼이 나누게 해주소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훼손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저희의 희망과 행복이 모든 이의 희망과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축복이 모든 이의 축복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말씀 목자들의 방문(루카 2,16-21)

2¹⁶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¹⁷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¹⁹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²⁰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목동들은 예수 아기의 모습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거룩함을 발견하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목자들은 한 갓난아기에게서 주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어, 저희의 아이들에게서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소서.

저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여, 존중하고 지지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공현 대축일

말씀 동방 박사들의 방문(마태 2,1-12)

2¹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²“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¹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¹²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희망을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오늘 동방박사들은 하느님의 징표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징표를 발견하고는 인생을 걸고 주님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여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만을 바라보고 탐욕스럽게 다가서는 저희를 어여뵈여기시어, 더 깊고 진실하고 풍요한 영적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세상에 새 희망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 나라를 살게 해주소서. 아멘.

주님 세례 축일

말씀 세례를 받으신 예수(마태 3,13-17)

3¹³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¹⁴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¹⁵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¹⁶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 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¹⁷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마음에 드는 자녀입니까?

기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 무리에 끼어 세례 대열에 서 계십니다. 굳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주님께서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잘잘못에 앞서, 이득과 손해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계산하고 따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이루게 해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2주일

말씀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34)

1²⁹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33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³⁴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나는 세상에 죄악을 없애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아니면, 어떤 유혹에 빠져 세상에 죄악을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보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저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켜서 세상살이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를 모두 극복하고, 세상의 죄악을 없애고 하늘 나라를 일으키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어 도와주소서. 아멘.



연중 제3주일

말씀 하늘 나라 전도 시작(마태 4,12-23)

4 ¹⁷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¹⁸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¹⁹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²⁰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누구를 통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주님께 안내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하늘 나라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회개하여,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소서.

아울러 저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신부님, 수녀님, 선배 신앙인들과 지금까지 저희가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소서. 아멘.

연중 제4주일

말씀 참행복(마태 5,1-12)

5³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어떤 행복을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내가 바라는 행복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라도 더 얻고 가져서 행복하고,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야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제게 주신 축복을 형제들 모두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께 대한 열정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어 주님만 바라는 참 행복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5주일

말씀 세상의 빛(마태 5,13-16)

5 ¹⁴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¹⁵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¹⁶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나는 세상에 몇 룩스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바라보

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길로 일러주신 주님 말씀을 씹고 또 씹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시고, 저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소서.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빛처럼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이루어, 세상의 빛이 됨으로써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6주일

말씀 화해하고 극기하고 정직하여라 마태 5,17-37)

5²³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²⁴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³⁴아예 맹세하지 마라. ³⁷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게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겠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인 저희가 늘 하나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끔 반목하여,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상황도 있었지만,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온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저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제단에 들라하셨기에 생각해 봅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희를 구해주신 주님, 저희의 옹졸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형제자매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7주일

말씀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38-48)

5⁴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⁴⁵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⁴⁸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누군가가 잘 안되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차별 없이 사랑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는 저희는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기도 합니다. 가끔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이에게나 선한 일을 하는 이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취주시고, 의로운 일을 하는 이에게나 불의를 저지르는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고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위 형제자매들을 행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일이 잘 풀리는 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며 밀어주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보고 이끌도록 주님의 사랑 가득하고 넓은 마음을 은총으로 심어주소서. 아멘.

연중 제8주일

말씀 하느님과 하늘 나라(마태 6,24-34)

6 ³²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³³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³⁴그러므로 내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는 늘 아버

지와 하나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늘 아버지의 의로움과 뜻을 찾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더 얻으려고 이것저것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아쉬움에 허덕이며 헤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불평과 불만을 터트리며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으로 이 땅에 복음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소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름으로써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세우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9주일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실행하여라(마태 7,21-27)

7²¹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²⁴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꿈꾸는 것을 이루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갖고 싶은 것을 얻음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가끔 탐욕스럽게까지 몰두하며 방황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내려주시어, 저희의 바람이 주님의 뜻안에 있을 때 완성되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고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법과 목표를 수정하여, 다소 느리고 고지식해 보여도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참되고 내실 있는 행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다지며 누리게 해주소서. 아멘.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참 행복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하늘 나라라는 참 행복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행복의 나라보다는 저희가

사순 제1주일

말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마태 4,1-11)

4 ³유혹자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⁴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⁵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⁶“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⁷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⁸악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⁹“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¹⁰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¹¹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유혹입니까?

기도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저희와 똑같은 인간으로 유혹을 당하셨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늘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하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순 제2주일

말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마태 17,1-9)

17 (예수님께서) ²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³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⁴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⁵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⁷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⁹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과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축복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는 늘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풍요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셨기에 그 결과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이고, 저희는 나 자신만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기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개인적이고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라는 탐욕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어 주님과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써 거룩하게 변모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사순 제3주일

말씀 사마리아 여인(요한 4,5-15.19-26.39.40-42)

4¹³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¹⁴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²⁴“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²⁵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²⁶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착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좀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저희의 욕심은 한이 없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아졌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도 더 행복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청하고만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 저희를 허황된 욕망의 탐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주 예수님을 뵈옵으로써 참 인간의 행복을 얻기 위해 살게 해주소서. 아멘.

사순 제4주일

말씀 눈먼 사람을 고쳐주심(요한 9.1.6-9.13-17.34-38)

9¹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⁶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⁷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³⁵ 그가 (안식일에 눈을 고쳐주신 분이 하느님에게서 온 분이 라고 변호하자)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³⁶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³⁷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³⁸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나는 누구를 그리며, 무엇을 바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안내하는 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늘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저희에게 이로운 대로, 저희에게 손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다보니 문제가 꼬이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할 때, 일이 풀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를 허송세월처럼 보내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저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아멘.

사순 제5주일

말씀 부활과 생명(요한 11,3-7.17.20-27.33-45)

11 ²³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²⁴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²⁵“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²⁶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²⁷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⁴³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⁴⁴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까? 죽은 다음이 아닌,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라자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기를 바라면서도, 마치 그것은 죽은 다음에야 올 머나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여기고, 지금 여기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이렇다하게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에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오늘 여기서 미리 앞당겨 살게 해주소서. 아멘.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말씀 수난 당하시는 예수(마태 27,11-54)

27 ²⁶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³²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³⁷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⁴⁵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⁴⁶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⁵⁰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⁵⁴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누가 행복합니까?

기도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저를 구하기 위해 저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나뉘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많이 얻어 누려야 한다고 여겨,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불행마저도 요구하며 세상에 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어여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게 해주시고, 형제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려운 십자가마저도 함께 들으소서 주님 나라를 앞당기게 해주소서. 아멘.

예수 부활 대축일

말씀 부활하심(마태 28,1-10)

28 ¹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⁵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⁶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⁸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⁹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¹⁰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지금의 내 생활을 버리고 새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보답하는 의미로 무엇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선사해 주신 부활의 새 생명에 감사드리면서도, 당장 죽음과 희생과 양보와 겸양에 주저하고 포기하는 저희를 용서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의 도시인 갈릴래아로 가셨듯이, 저희도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을 따르게 해주소서. 아멘.

부활 제2주일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요한 20,19-31)

20¹⁹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⁴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써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²⁶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²⁷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²⁸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²⁹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나 한계가 있습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는 부활하신 주님을 뵈오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죽음 이후의 생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험도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피부에 와 닿도록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의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며, 그것이 또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기며 처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를 확실한 체험을 안겨 주시어, 현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살게 해주소서. 아멘.

부활 제3주일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루카 24,13-35)

24¹⁹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²⁰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²⁵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느냐? ²⁶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²⁸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²⁹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³⁰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³¹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³²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일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데, 저희는 미사드릴 때와 기도드릴 때만 주님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며 주님을 잊고 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잘 알아 뵈옵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아멘.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말씀 착한 목자(요한 10,1-10)

10 ³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⁴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⁵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⁷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⁸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⁹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¹⁰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예수님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 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이끄시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사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찾아 여기 저기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유행처럼 뒤쫓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빛으로 이끌고 계신 착한 목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어,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한 경쟁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소서. 아멘.

부활 제5주일

말씀 아버지께 가는 길(요한 14,1-12)

14 ⁶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⁷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⁸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⁹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¹¹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¹²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꿈이 아버지 하느님과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저희가 추구하는 이 길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또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때를 쓰듯 청하고만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굳건히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삶의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부활 제6주일

말씀 성령을 약속하심(요한 14,15-21)

14 ¹⁵“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¹⁶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¹⁷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¹⁸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¹⁹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²⁰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²¹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살면서 어떻게든 저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거룩해지고자 이렇게 저렇게 애써보지만 이렇다 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계명을 깨우치고 잘 지켜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을 뵈옵게 해주소서. 아멘.

주님 승천 대축일

말씀 승천하심(마태 28,16-20)

28¹⁶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¹⁷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제 한 몸, 제 가정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 이 시대에,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엄두도 안 나는 일이기도 하여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를 주님 신앙의 도구로 불러주셨으니, 저희에게 복음 선포에 걸맞은 은총과 힘을 주시어 주님 사랑을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활동하는 동안 저희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 대축일

말씀 사명을 부여하심(요한 20,19-23)

20¹⁹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⁰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²¹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 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는 부활하신 주님을 뵈오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저희는 제 한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허덕이며,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잘 안 되어야 하고,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실패하여야 하고, 제가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힘겹게 움직여야만 할 것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저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큰 사랑을 담고 형제들과 이웃들을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해주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얻게 해주소서. 아멘.

삼위일체 대축일

말씀 삼위일체(요한 3,16-18)

3 ¹⁶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¹⁷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¹⁸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님을 믿고 사랑하여, 행복하십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랑을 펴부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세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로 만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님을 뵈옵기가 두렵고 죄스러워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셔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시어, 저희의 상처받고 좁아진 마음을 다시 넓혀주시고 풍요하게 하시어 형제자매들을 품어 안게 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말씀 생명의 빵(요한 6,51-58)

6 ⁵¹“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⁵³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⁵⁴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⁵⁵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⁵⁶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⁵⁷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⁵⁸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무엇으로 사십니까?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잘 따를 수 있도록 성체성사를 통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리해가면서라도 이것저것 아낌없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게 사는 이들에게는 한 톨을 아끼고 절약하며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체성사를 통해 줄어들지 않는 영육의 양식을 베풀어주시니, 저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주님의 은총과 선물을 나눔으로써 주님 성체 안에 하나되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10주일

말씀 세리들과 음식을 드심(마태 9,9-13)

9 ⁹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¹⁰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¹¹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¹²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¹³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누구와 어디서 미래와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그럴싸한 사람들을 마다하시고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은 가끔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님, 주님께서서는 보잘것없고 나약한 저희를 도우려 오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악에서 해방되고 치유되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아직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인생을 힘겹게 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11주일

말씀 열두 사도를 파견하심(마태 9,36-10,8)

9 ³⁶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³⁷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³⁸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10 ¹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⁵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⁶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⁷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⁸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성당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도 몇 배로 더 잘 될 것 같고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보잘것없는(?) 듯한 길 잃은 이들과 환우들과 마음이 심약한 이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공적인 사업이나 기적적인 효과를 바라거나, 확대재생산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심을 깨닫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저희에게 새 희망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 해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라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12주일

말씀 복음을 선포하여라(마태 10,26-33)

10 ²⁶“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²⁷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²⁸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²⁹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³⁰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³¹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³²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³³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실현하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저희 머리카락 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모른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넘어갑니다. 저희는 그 사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외면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 교회에 봉사하여야 할 때, 가정에 충실하고 잘 돌보아야 할 때,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호소를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님과 주님께서 저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형제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13주일

말씀 받아들이는 이들이 받을 상(마태 10,37-42)

10 ³⁷“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³⁸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³⁹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⁴⁰“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⁴¹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⁴²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누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목숨을 걸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결과로 다시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살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나 손해가 올 듯싶으면 입을 다물고,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에 개입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바에야 그냥 방치하거나 손을 놓고 맙니다.

주님, 저희의 무관심과 용기 없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애에 따른 망설임과 주저함을 용서하시고 헌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의 십자가도 아울러 짊어지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14주일

말씀 내 명에를 메어라(마태 11,25-30)

11 ²⁵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²⁶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²⁷“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²⁸“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²⁹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³⁰정녕 내 명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평안하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일러주시고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작은 짐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포기하거나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또 하나의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머니의 푸근한 가슴 같은 주님 품에 안겨 삶에서 마주치는 갖가지 시름과 역경을 다 잊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명에 삼아 기꺼이 짊어지게 하시어,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15주일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태 13,1-23)

13 ¹⁸“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¹⁹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²⁰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²¹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²²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²³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기쁨을 얻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되새기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살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반대가 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돌봐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삶의 매순간 실현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16주일

말씀 가라지의 비유(마태 13,24-43)

13 ³⁶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³⁷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³⁸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³⁹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⁴⁰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⁴¹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⁴²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⁴³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 안에서 좋은 씨는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늘 나라의 좋은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끔은 ‘꼭 이 길만이 이 방법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호응이 없으니 뭐하나?’,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기라도 하나?’ 등등의 생각에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마치 현실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 계란을 던지는 것만 같아 점점 약해지는 저희의 믿음을 굳세게 잡아주시고, 충실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17주일

말씀 보물과 진주와 그물의 비유(마태 13,44-52)

13 ⁴⁴“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⁴⁵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⁴⁶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⁴⁷“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⁴⁸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⁴⁹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⁵⁰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저희는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빠져 꿈도 이상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믿음도 일상에서 반복되는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늘 나라로 바꾸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듯이, 저희도 주님과 주님께서 세우기 시작한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18주일

말씀 오천 명을 먹이심(마태 14,13-21)

14 ¹⁵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 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¹⁷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⁸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¹⁹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²⁰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²¹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님을 믿고 모심으로써 만족스럽고 행복하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기적을 베푸시어 주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먹여 주시고, 그 곳에 참석치 않은 이들에게 돌아갈 정도의 많은 몫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이 다가올 때면 당혹해합니다. 저희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어, 겉으로는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주님, 저희가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모아 봉헌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임을 알고 청하오니, 저희의 작은 정성을 받아주셔서 주님 기적을 이루는데 써주시고, 저희도 주님의 기적을 나눠주는 뿌듯한 제자되게 해주소서. 아멘.

주님 변모 축일

말씀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28-36)

9 ²⁸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²⁹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³⁰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³¹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³²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³³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³⁵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³⁶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아름다워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산위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희생하실 일에 대하여 나누시며 거룩하게 변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 희생하시느라 결과적으로 거룩하게 빛나셨는데, 저희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아름답고 젊게 보이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과와 방법이 전도된 저희의 탐욕스런 태도를 자각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의 현세적인 노력이 헛된 욕망으로 기울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회와 인류사회의 성숙과 평화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한층 더 거룩해지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19주일

말씀 물위를 걸으심(마태 14,22-33)

14 ²⁴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²⁵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²⁶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²⁷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²⁸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²⁹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³⁰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³¹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³²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빵의 기적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뻐했지만, 예수님과 떨어지자마자 풍랑에 휘말리며 방황합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힘을 보았으면서도 깨닫고 믿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주님과 떨어지면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알면서도, 미사 드리고 기도할 때만 주님을 생각하고 일상에선 주님을 잊고 살기에 늘 어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하시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현실의 장애와 한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20주일

말씀 가나안 여자의 믿음(마태 15,21-28)

15 ²¹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²²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²³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²⁴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²⁵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²⁶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²⁷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⁸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현실에서 겪는 장애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밥상 아래에서 음식물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낮추며, 간절히 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희는 집안에 장애나 우환이 생기면, 그것을 감싸 안고 풀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서둘러 감추며 혹시 체면이 상하거나 주위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로 전전긍긍합니다. 세상이 이해와 도움보다는 차별과 멸시 그리고 낙인을 찍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주님, 저희가 곤궁과 시련을 겪을 때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되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현실을 이겨내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21주일

말씀 베드로의 고백(마태 16,13-20)

16 ¹³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⁴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¹⁵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¹⁶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⁷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¹⁸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¹⁹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저희를 구해주시려고 다가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끔 주님께서 저희 생애의 주인임을 망각하고 저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어떤 주님의 뜻과 말씀은 현세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되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저버리며, 주님을 취사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형제자매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눔으로써 하늘 나라의 시민을 얻고 확장하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22주일

말씀 수난과 부활 예고(마태 16,21-27)

16 ²¹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²²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맏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²³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²⁴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²⁵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사람들이 던진 십자가형을 기꺼이 받아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에서 오는 갖가지 장애 그리고 가족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어떤 때는 저를 더욱더 힘겹게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영광의 부활이 다가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피하고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힘겹고 버거운 때일수록 더욱더 저를 품 안에 숨겨주시고 힘을 주시어 주님께서 제가 짊어지도록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게 해주소서. 또 원하신다면,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짊어지도록 청하는 십자가도 바라보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23주일

말씀 형제가 죄를 지으면(마태 18,15-20)

18 ¹⁵“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¹⁶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¹⁷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¹⁸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¹⁹“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²⁰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걸고 우리를 구하셨듯이, 저희에게도 한 명, 두 명, 세 명, 심지어는 교회까지 동원하여 형제자매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는 마음에 들지 않은 형제자매들을 별명짓고, 규정짓고, 단정짓고, 피하고, 단죄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듯이 저희도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며 기도와 열정으로 지지하고 후원하여 마침내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노력을 보시고 저희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24주일

말씀 죄를 지으면 용서하여라(마태 18,21-35)

18 ²²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어떤 주인이 종이 어렵게 산다는 말을 듣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다른 사람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³¹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³²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³³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³⁴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³⁵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하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매번 나약함과 부족함을 핑계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희를 그에게 걸맞은 벌로 단죄하여 내치지 않으시고 거듭 용서해 주시며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거듭 용서해 주심으로써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끔 저에게 잘못된 이들과 자식들에게는 정의나 교육상의 이유로 각박하게 대하며 호되게 야단치곤 합니다. 제 스스로의 이런 잘못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받고 인정받고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깨닫고 보답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살아가 하늘 나라를 이루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25주일

말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마태 20,1-16)

20 (어떤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사서 일을 시키고, 오후 다섯 시에 또 일꾼을 사서 일을 시킨 후, 품삯을 다 똑같이 나눠주자 일꾼들이 투덜거렸다.)¹²“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피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¹³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¹⁴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¹⁵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¹⁶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가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부끄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 주님의 초대에 응한 모든 이와 그 자격을 갖춘 모든 이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제가 나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 보다는 훨씬 낫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비교되고, 선발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주님, 제 자신의 인성을 어느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찾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과 장점 및 독특한 개성을 발견하고 계발함으로써,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연중 제26주일

말씀 두 아들의 비유(마태 21,28-32)

21 ²⁸“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켰다. ²⁹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³⁰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³¹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³²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늘 아버지의 뜻을 찾고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번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기꺼이 응하지 못하지만 내일은 주님 앞에 나아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저를 찾기보다 내놓고 나누는 것이 저를 찾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늘 기꺼이 응답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여기시어, 내일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연중 제27주일

말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마태 21,33-43)

21 (어떤 포도밭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철이 되어 소작료를 받으려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종들을 죽여 버리고 소작료를 내지 않았다.)³⁷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³⁸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³⁹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⁴⁰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⁴²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⁴³하느님께서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나를 나에게 맡기신 우리 주님께 어떻게 소작료를 내고 계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제 생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주인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마저도 제가 판단하여 받아들이 것인지 여부를 취사선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귀하고 특별한 선물인 제 생명의 유지와 포기여부조차도 제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재능과 소질을 주시며 저마다 자신의 삶과 인류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하여 나누며 좋은 사회를 이루라고 주셨는데 저는 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우선 삼아 사용해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제 생명과 재능과 소질을 잘 개발하여 제 자신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사용하여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28주일

말씀 혼인 잔치의 비유(마태 22,1-14)

22 ¹예수님께서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²“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³그는 종들을 (여러 번)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⁷임금은 진노하였다. ⁸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⁹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 오너라.’

¹¹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¹²“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¹³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¹⁴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누구의 어떤 초대에 응하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시며, 신명나게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여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와 잘 맞고, 저희의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초대에 우선적으로 임하고, 제 삶에 직접적이고 우호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 볼일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초대에는 쉽사리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고 관련된 사람들과만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경계와 거부감마저 간직한 채 살아 가고 있습니다.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취 주시는 공의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형제자매들을 차별하지 않고, 매순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29주일

말씀 세금 내는 문제(마태 22,15-21)

22 ¹⁵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¹⁶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
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
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
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¹⁷그러니 스승님은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¹⁸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악
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¹⁹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
리온 한 닢을 가져오자 ²⁰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나?” 하고 물으셨다. ²¹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
답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나는 어느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길이며 진리요 생명
이신 주님께서 늘 저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 삶을 향한 비
전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건도록
안내해 주시는데, 저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보다 현실 세계의
이해타산에 빠져 경쟁과 물질의 향연에서 뒤처지거나 낙오되
지 않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해안을 주시고, 현실
세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헤매지 않게 해주시며, 현실에 살면
서도 현세의 가치관이 추구하는 처세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30주일

말씀 가장 큰 계명(마태 22,34-40)

22 ³⁴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한데 모였다. ³⁵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³⁶“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³⁷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³⁸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³⁹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⁴⁰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자라면서부터 하느님께 많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느님을 사랑해서 바친 것인지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욕심스럽게 매달린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주 미사에 참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업적을 찬미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바라는 만큼 해주어 주님께 한 층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소서. 아멘.

연중 제31주일

말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마태 23,1-12)

23 ¹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³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⁵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⁸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⁹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¹⁰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¹¹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¹²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섬기셨기에 오늘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가끔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실수와 실패를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한 쪽으로는 스스로 인격적으로 성숙되거나 내적인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힘겨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허황되게 ‘언제쯤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봐 줄까?’ ‘언제쯤 내 진면목이 드러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될까?’하며, 다른 이들 위에 올라설 기회를 엿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 강건해지고, 약한 이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헌신하여, 내가 구한 이들과 함께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32주일

말씀 열처녀의 비유(마태 25,1-13)

25 ¹“그때에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⁵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⁶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⁷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채기는데, ⁸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⁹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¹⁰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¹¹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¹²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¹³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요즘 어디에 주로 신경을 쓰며 삽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늘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부터 하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쓸 데에 다 쓰면서 좀 더 어려워지면 그 때 도와주자 하고 연기하고, 지금 당장은 내 할 일 하고 내 몸매 가꾸느라 바쁘니까 봉사활동은 나중에 하자하며 주저하면서 하루하루를 내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아멘.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말씀 탈렌트의 비유(마태 25,14-30)

25 ¹⁴“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¹⁹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²⁰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¹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²⁴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²⁵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²⁶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²⁸“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²⁹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 능력과 소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계발하고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과 선한 마음, 좋은 능력과 소질을 주시며 잘 계발하여 공동체의 성숙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능력과 소질들이 다 합쳐져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 하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의 작은 노력도 정성으로 받아주시어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왕 대축일

말씀 최후의 심판(마태 25,31-46)

25 ³¹“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³⁴그때에 임금의 자기 오른 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³⁵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³⁶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³⁷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³⁸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³⁹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⁴⁰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

이다.’ ⁴⁶이렇게 하여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내 가정과 주변에 내가 남 다르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써 배려하며 돌보아주어야 할 이웃이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한데 모여 함께 살라고 보내주셨고,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어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돌보라고 보내주시고, 눈에 띄게 해주시고, 소리를 듣게 해주신 가족과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잘 돌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을 모아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해주소서. 아멘.

설(음력 1월 1일)

말씀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루카 12,35-40)

12 ³⁵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³⁶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³⁷**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불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이다. ³⁸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³⁹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⁴⁰**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누구와 무엇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삽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모님과 좋은 어른들을 보내시어 저희를 길러주시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명절이면 제사상에 지방을 써 올리던 아버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새 옷과 새 신발을 마련해 주시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명절이면 찾아오던 일가친척들, 차례로 세배를 올리던 모습도 생생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애에 좋은 영향을 끼쳐주셨던 어른들도 생각납니다. 그분들을 기리며 우리 주변에서 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도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와 함께해 주셨던 부모님과 조상님들, 신앙을 전수해 주신 순교 성인들,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은인들, 우리 사회를 오늘에 있게 해주신 좋은 어른들과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공직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품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소서. 아멘.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

말씀 너희는 증언할 것이다(마태 10,17-22)

10 ¹⁷“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¹⁸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¹⁹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²⁰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다.

²¹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²²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아버지의 영께서 내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 초대 사제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축성하시어 한국 교회 성직자들의 주보로 삼으셨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주님의 목자로서 교회를 설립하고 지원하시느라 눈 덮인 압록강을 건너라, 돛단배에 몸을 의지하고 황해 바다의 넘실대는 파도 앞에 돛단배 한 척에 몸을 의지하고 풍랑을 맞아 유랑하였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 귀국하여 한국 교회를 성요셉과 성모님께 봉헌하고, 헌신적으로 사목하다가 옥중에서조차 신자들에게 하늘 나라를 권면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님의 뒤를 이어 순교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순교 사제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늘 나라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말씀 마리아의 방문과 노래(루카 1,39-56)

1 ⁴¹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⁴⁵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⁴⁶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⁴⁷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⁴⁸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⁵⁰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⁵¹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⁵²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 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⁵³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⁵⁴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⁵⁵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엘리사벳 성녀는 성모님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아기를 가질 것이고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 세상에서 펼쳐질 자신에게 내려진 축복을 온 민족에게 내려진 축복으로 확장하며,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에 따라 평생 하느님의 어머니로 사셨고, 오늘 승천하십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성모님과 같은 겸손과 순명의 신앙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성모님의 전구로 저희와 온 인류의 구원을 앞당겨 주소서. 아멘.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

말씀 나를 따르려면(루카 9,23-26)

9 ²³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²⁴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²⁵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²⁶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이며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가족과 형제자매들이 내게 짊어지기를 바라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가끔 웬지 공통사에서 내가 소외되고 싶지 않고, 끼어들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주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나와 내가 아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싸움이 납니다.

주님, 제가 제 생각과 의지와 욕심을 버리고, 저의 나약하고 부족한 신체적 인격적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게 해주시고, 가족과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맡아주기를 바라는 십자가마져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한가위(음력 8월 15일)

말씀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루카 12,15-21)

12¹⁵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16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17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18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19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20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21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한가위를 맞으며 감사드릴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드리겠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과 가족과 이웃 형제자매들을 주시고, 오늘 이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순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하는 저희의 기도와 제물을 어여뵐 받아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 는 의미로 어려운 일가친척과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는 미약한 정성도 헤아려 주시며, 더욱더 진솔하고 충실하게 제 몫과 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아멘.

전교주일(10월 넷째 주일)

말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마태 28,16-20)

28¹⁶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¹⁷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¹⁸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습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시며, 세상 끝 날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가끔은 신앙을 속으로만 간직해야지 겉으로 말하면 혹시 부작용을 가져올까 두려워 주저하게 되고, 다른 한 쪽으로는 저도 지키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어야하나 싶어 부끄럽기도 하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 용기 없고 부끄러워하는 저희를 어여뵈 여기시어, 주님의 커다란 은총으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힘차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인 대축일/ 위령의 날(11월 1일/2일)

말씀 행복 선언(마태 5,3-12ㄴ)

5 ³“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⁴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⁵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⁶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⁷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⁸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⁹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¹⁰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¹¹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¹²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묵상과 나눔 주제

1.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장면은?
2. 주님께서 이 성경 기사를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 지금 행복하십니까?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가끔 저희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신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싫은 소리를 하면 듣기 싫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싫어하면 좋은 것이라도 실천하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부록 전례 봉사자 고유기도문

1. 전례부원의 기도

- 미사 전 기도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제단 가까이에서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불러 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전례에 임하기 전에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를
어여뵈 받아 주소서.

미사 중에 저희의 마음과 목소리를 축복하시어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모든 교우들이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찬미하도록 돕게 하소서.
저희 봉헌이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찬미이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겸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제단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당신을 찬미함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이 작은 ‘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시리라 믿나이다.

아멘.

- 미사 후 기도

주님! 오늘 전례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다음 기회에는 더욱 잘 준비하여

모든 신자들이 마음 가득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느끼는 전례가 되게 하소서.

이 전례를 통해 저희 구원을 새롭게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2-1. 가톨릭 전례 봉사자의 기도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당신의 작은 도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제단에 미사 준비를 하며
봉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당신께 영광을 드리며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전례에 참례하는 교우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저희 작은 활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미사 준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기도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녀 소화 데레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2-2. 해설자의 기도

- 해설 전 기도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과 모든 신자들의
거룩한 전례를 해설하는 임무를 맡았나이다.
주님을 공경하고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미사해설에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미사성제에 참례한 모든 이가 하나 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드리는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시며,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이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누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해설 후 기도

주님, 오늘 전례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혹 부족한 점은 메우고,
잘못된 점은 고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다음 기회에는 더욱 잘 준비하여
모든 신자들이 마음 가득 주님 사랑과 거룩함을 느끼는 전례가
되게 이끌어 주소서.
이 전례를 통해 저희 구원을 새롭게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천주교 대구대교구 전례위원회)

3. 독서자의 기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가 독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친히 임하시어 제 입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제 입시울을 열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침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찬미와 영광이 돌려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4. 제대회원이 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

— 제단 일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세상을 사랑하신 당신 마음을 닮게 하소서.
꽃처럼 고운 신앙을 갖게 하시어
주님 앞에 저희를 봉헌하게 하소서.
저희의 간절함과 고통을 아시오니
저희를 당신의 거룩한 은총으로 치유토록 하소서.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꽃을 꽃게 하시어
주님을 위한 애덕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단 일을 마치고서
자애로우신 아버지!
제단 앞에 봉헌된 그리스도의 삶처럼
저희도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제단에 모인 하느님 백성 모두가
저희의 꽃봉헌으로 주님 현존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에게 단순함과 소박함을 주시어
제단 앞에 주님 사랑을 전하는 꽃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5-1. 가톨릭 전례 꽃꽂이 봉사자 기도문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

당신의 작은 도구로

불러 주셔서 감사 하나이다

주님의 제단에 꽃을 꽃으며

봉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당신께 영광을 드리며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전례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저희의 작은 활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꽃을 꽃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기도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녀 소화 데레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5-2. 제대 꽃꽂이 봉사자의 기도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정신과 생명으로 채워 주소서.

제 존재에 온전히 스며들고 제 존재를 차지하시어

제 삶이 당신 생명을 비추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빛나시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제 안에 깃들인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제 안에 머무소서.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고 제 안에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시어.

제가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제 빛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아멘.

- 뉴만 추기경이 쓰고 마더 데레사 수녀가 매일 바친 기도(천주교 대구대교구 전례위원회)

b-1. 성가대의 기도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의 흠숭과 감사 어여뻔 보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몸을 악기 삼아
맑고 고운 영혼의 성가를
아름다운 가락으로 주님 대전에 바치나이다.
소리로는 부족하여도
저희 정성 굽어 보사 즐겨 받아 주시며,
마디마디 화음 이루어 노래할 때
독생성자 구속 공로와 부활의 기쁨이 저희와 주님 백성 안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성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녀 세실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b-2. 성가대의 기도

빛과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크신 은총 표현할 길 없사오나
찬송과 영광 바치려 저희가 모였사오니,
미약한 정성 받아들이소서.
저희의 노래가 풍성하고 만족하는 희생 제물이 되고
공동체를 엮는 끈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하여
노래로 치유하는 소명 받았음을 기억하며,
항상 영롱하고 아름다운 소리와
장엄하고 열정이 넘치는 가슴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작은 새의 지저귀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사랑하는 공동체
저희 성가대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6-3. 선창자의 기도

온 세상의 갖가지 소리를 통해 찬미 받으시는 주님,
오늘 전례에서 주님의 엄위하심과 거룩하심을 읊으려 하오니
제 목과 성대를 축복하시어
맑고 고운 목소리로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어둠과 시름에 잠긴 곳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제 목소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들어 높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7. 반주단 기도문

주님!
주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한 성전에서
미사 때 오르간 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음악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창의와 인내로 반주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8. 복사단 기도문

-미사 전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거룩한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제대에서 미사가 거룩하게 봉헌될 수 있도록

신부님을 도와 드리고 싶어요.

실수 없이 복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과 미사에 참여한 교우들에게 은총
을 듬뿍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항상 깨끗하게 지켜 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미사 후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어 감사합니다.

성당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은총
을 주시고,

훌륭한 사제가 많이 낳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